

한주간 쉽게 보는

# 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

Jeju News Keyword Trends

No. 65



# Contents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대상 기간 : 2025.11.06~2025.11.12

##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정치·행정 .....	1
▪ 경제·관광 .....	2
▪ 지역·사회 .....	2

##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	3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	7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	11

##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갈등, 재정, 오영훈, 평가, 항공
경제·관광	소상공인, 기반, 금융, 수출, 현지
지역·사회	발견(해안/마약류), 쿠팡(새벽), 노동자, 실천, 복지

※ 분석 기간 : 25.11.06.~25.11.12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정치·행정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공항 10년, 갈등 중점관리대상 지정</li> <li>- 도의원 선거구 확정 주민 갈등</li> <li>- 오영훈 지사 '내란 부화수행' 혐의 고발</li> </ul>
	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6년 제주도 예산 7조 7875억 편성</li> <li>- 역대 최대 4500억 규모 지방채 발행</li> <li>- 정부에 지방교부세율 인상 건의</li> </ul>
	오영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및 현안 건의</li> <li>- 2026년 예산안 시정연설 및 비전 제시</li> <li>- 도의회 도정질문 주요 현안 답변</li> </ul>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 '깜깜이 채용' 실태 적발</li> <li>- 마약류 관리 '구멍'.. 감사위 적발</li> <li>- 노인 일자리 사업 전국 모범사례 평가</li> </ul>
	항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공항 10년, 국토부-제주도 입장</li> <li>- 제2공항 '조류 충돌' 최대 쟁점 부상</li> <li>- 대통령실, 지방공항 비용 분담 검토</li> </ul>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경제·관광	소상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 정책</li> <li>-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금융 지원</li> <li>- 소상공인 판로 확대 및 교류 행사</li> </ul>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린수소 산업 육성 기반 구축</li> <li>- 혁신 스타트업 성장 기반 조성</li> <li>- 스마트 농업 유통 기반 확충</li> </ul>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민·취약계층 포용금융 강화</li> <li>- 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금융 확대</li> <li>- 저소득층 자산형성 금융사업 부진</li> </ul>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축산물 싱가포르 대규모 수출</li> <li>- 제주 농산물 몽골 신시장 개척</li> <li>- 가공식품 및 신제품 해외 진출</li> </ul>
	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세안 시장 개척 위한 현지 공략</li> <li>- 대만 관광객 유치 현지 마케팅</li> <li>- 중국 시장 공략 현지 교류회</li> </ul>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지역·사회	발견(해안/마약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해안 마약 발견 10건 육박</li> <li>- 민관군 합동 대대적 해안 수색</li> <li>- 마약 유통 거점화 우려 확산</li> </ul>
	쿠팡(새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대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 사망</li> <li>- '과로사' vs '생존권' 논란</li> <li>- 노동계, 특별근로감독 촉구</li> </ul>
	노동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쿠팡 30대 노동자 사망 과로 논란</li> <li>-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예고</li> <li>- 제주 외국인 노동자 역대 최다</li> </ul>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0년간 800회 헌혈 '생명나눔 실천'</li> <li>- '노블레스 오블리주' 기부 실천</li> <li>- 탄소중립·자원순환 생활 실천</li> </ul>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6년 기초생활보장 대폭 강화</li> <li>-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복지 지원</li> <li>- 자살률 감축 위한 민관 협력 강화</li> </ul>

##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2025년 11월 6일~11월 12일 기간,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에 관한 제주지역 7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는 약 814건임
  - 정치·행정 분야 307건, 경제·관광 198건, 지역·사회 309건임
  - \* 대상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갈등, 재정, 오염, 훈, 평가, 항공 등으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p>정치·행정</p>	<p>갈등</p>	<p>- 제2공항 10년, 갈등 중점관리대상 지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월 10일,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 발표 10주년을 맞이함. 도민사회 찬반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제2공항을 '하반기 공공갈등 중점관리대상' 1호로 지정함. 갈등지수가 300점 만점에 235점으로 도내 27개 갈등 사업 중 가장 높게 평가됨. 입지 선정의 정당성, 주민 생존권 위협 등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돼 지속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함</li> <li>· 사회협약위원회는 "항공 수요 예측이 1000만 명 빚나갔다"고 비판하며, 입지 타당성 재검증 및 '도민 결정 원칙' 준수를 촉구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li> </ul>
--------------	-----------	--

정치·행정	갈등	<p>쟁점이 해소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도민이 최종 결정해야 한다는 메시지 발표. 찬반 단체는 각각 결의대회 및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백지화와 조속 추진을 동시에 요구하며 10년째 평행선을 달림</p> <p>- <b>도의원 선거구 획정 주민 갈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헌법재판소가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인구편차 상하 50% 기준을 지키도록 결정함에 따라 선거구 재조정이 불가피해짐. 현재 32개 선거구 중 제주시 삼양·봉개동(3만 1810명)이 인구 상한선(3만 1320명)을 초과함.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삼양동을 독립시키고 봉개동을 아라동을 선거구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li> <li>· 선거구획정위의 조정안에 대해 봉개동과 아라동 주민 모두 공청회에서 강력 반발. 생활권이 다르고 지역 대표성이 왜곡될 수 있다며 반대 의사 표명. 교육의원 5명 일몰 문제와 맞물려 도의원 정수 조정 여부가 변수지만, 정수 1명 증원 시 연쇄적으로 5개 선거구가 분구 대상이 되어 실현 가능성이 낮음</li> </ul> <p>- <b>오영훈 지사 '내란 부화수행' 혐의 고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부건 변호사, 국민의힘 해체행동 등이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당시, 오영훈 지사가 행안부의 청사 폐쇄 지시를 따랐다면 '내란 부화수행죄'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함. 이들은 지자체 청사 폐쇄 명령이 불법 계엄의 전국 확산을 위한 준비행위였으며, 오 지사가 현장 부재 및 출입 통제로 이에 동조했다고 주장함</li> <li>· 제주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력 반박. 당시 청사 폐쇄는 없었으며 평상시 야간 수준의 통제였음을 강조함. 또한 오 지사가 해병대 9여단과 경찰청에 '불법 계엄 무효 및 명령 불복'을 강력히 요구했다며 신속 대응 사실을 밝힘. 도는 허위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고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발한 상태임</li> </ul>
	재정	<p>- <b>2026년 제주도 예산 7조 7875억 편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영훈 지사, 제444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진행. 새해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2.76%(2092억원) 증가한 7조 7875억원으로 편성됨. 대내외 여건 악화와 세수 감소 등 역대 가장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알찬 성장'을 목표로 적극적인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함</li> <li>· 민생 회복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도민 생활 안정과 청년·미래세대 성장 기반 마련에 중점. 부서운영경비 20%, 업무추진비 30% 절감 등 행정 내부 비용 절약 병행. 사회복지 예산은 총예산의 25% 수준인 1조 9730억원을 편성해 제주가치돌봄 등 선도적 복지 정책을 지속할 계획임</li> </ul> <p>- <b>역대 최대 4500억 규모 지방채 발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가 장기 침체에 빠진 건설 경기 부양 및 상하수도 등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6년도 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인 4500억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포함함. 도의회는 확장 재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 건전성 악화와 미래 세대 부담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표명하며 철저한 심사를 예고함</li> <li>· 오영훈 지사는 지방채 발행 부담을 인정하면서도, 2028년까지 관리채무비율</li> </ul>

정치·행정	재정	<p>을 21% 범위 내에서 관리하며 재정 건전성을 지키겠다고 밝힘. 도정질문에서 과거 채무비율 목표를 15%, 18%에서 계속 상향 조정한 데 대한 추계 능력 신뢰성 지적이 나왔으나, 오 지사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함</p> <p>- <b>정부에 지방교부세를 인상 건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영훈 지사,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주는 저성장 기조에 직면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지방재정의 과감한 확충을 공식 건의함. 20여 년간 19.24%로 고정된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안의 조속한 단행을 촉구함</li> <li>· 현재 행안부는 법정률을 22%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 중. 제주도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지원받고 있어, 전체 교부세 파이가 커지면 제주 재정에 큰 도움이 됨. 현재 연 1조 8000억원 수준인 교부금이 법정률 인상 시 최대 7000억원까지 증액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li> </ul>
	오영훈	<p>- <b>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및 현안 건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영훈 지사,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주요 현안을 건의함.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행안부가 제시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방향에 찬성하며 조속한 단행을 요청함. 20여 년간 고정된 교부세율 상향 필요성 강조</li> <li>·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과 관련, "제주는 7차례 제도 개선에도 개별 열거주의 방식의 한계로 신속 대응이 어려웠다"고 지적. '제주형 포괄적 권한 이양' 방향에 대한 대통령과 총리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함. 또한 제주산 한우·돼지고기 싱가포르 수출 확정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 부처에 감사를 표명함</li> </ul> <p>- <b>2026년 예산안 시정연설 및 비전 제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영훈 지사, 11일 제444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7조 7875억원) 시정연설 진행.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45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알찬 성장'을 위한 확장 재정 기조를 설명함. 관리채무비율은 21%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힘</li> <li>· 미분양 주택 해소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설정하고 제도 개선과 예산 사업 병행을 약속함.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원시취득세 50% 감면' 조례 개정, '착한가격 주택' 선정 및 도외 홍보, 공공임대주택 500호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건설업계 청신호가 소비심리 회복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li> </ul> <p>- <b>도의회 도정질문 주요 현안 답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제주 제2공항 성산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 피해 해소 요구에 "내년 상반기 중 조기 해제 가능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긍정 답변함. 도의회 상임위 역시 관련 주민 청원을 원안 가결하며 오 지사의 결단을 압박함</li> <li>· 청다오 항로 물동량 부진(3항차 컨테이너 3개) 지적에 대해 "항로 안정화에 1~2년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물동량 확보를 위해 내년 1월 청다오 연락사무소를 개소하고, 테무·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전자상거래 물류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답변함</li> </ul>

정치·행정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 '깜깜이 채용' 실태 적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감사위원회가 8개 지방공공기관의 2024년도 채용 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함. 총 14건의 행정상 조치와 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함. 공정 채용 시스템의 허점이 다수 드러났으며, 특히 제주도장애인체육회에 '기관 경고' 처분을 요구함</li> <li>· 장애인체육회는 도와 협의 없이 일반직 8급 직제를 신설해, 무기계약직 직원을 공개경쟁 절차 없이 일반직으로 부적정하게 전환 채용함. 제주관광공사는 비상임이사 공모 시 경력·학위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지원자 2명을 임원추천위원회가 검토 없이 최종 임원 후보자로 추천한 사실이 적발됨</li> </ul> </li> <li>- 마약류 관리 '구멍'.. 감사위 적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감사위원회, 도·행정시·의료원 대상 마약류 의약품 관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 공개. 마약류 관리 전반의 허술함과 부실 대응이 확인됨.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마약류 보고의무 위반 추정 사례 675개소 중 단 1.7%인 12개소만 점검하고, 나머지 663개소는 특별감시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li> <li>· 제주 시내 한 치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 100정을 분실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제주시 보건소는 보관 규정 위반 정황에도 불구하고 추가 조사나 행정처분 검토 없이 사건을 종결 처리함. 또한 자격 기준 미충족자를 마약류감시원으로 임명하고, 몰수 마약류 관리 대장을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도 확인됨</li> </ul> </li> <li>- 노인 일자리 사업 전국 모범사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 노인 일자리 사업이 전국 모범 사례로 평가받음. (사)느영나영복지공동체가 운영한 '공항 안전 불법 드론 감시단'은 보건복지부 주관 '2026년 전국 확산 모델 아이템'으로 선정됨. 드론 자격증 보유 시니어들이 공항 주변 비행 금지 구역을 순찰·계도하는 사업임</li> <li>· 마을공동체가 직접 노인일자리 창출한 전국 첫 사례인 '시흥리 복합나눔센터' 사업 역시 모범 사례로 꼽힘. 제주도는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을 871억 9300만원으로 17.5% 증액하고, 일자리 수를 1만 7475명으로 10.3% 확대할 계획임</li> </ul> </li> </ul>
	항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공항 10년, 국토부-제주도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월 10일,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성산을 입지 발표 10주년을 맞이함. 10년간 찬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토부는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도민과 적극 소통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함</li> <li>· 오영훈 지사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심각한 상황이 확인되면 추진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함. 제주도의회의는 제2공항 관련 '정보공개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을 밝힘. 사회협약위원회는 "항공 수요 예측이 1000만 명 빛나겠다"며 도민 결정 원칙 준수를 촉구함</li> </ul> </li> <li>- 제2공항 '조류 충돌' 최대 쟁점 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공항 건설의 최대 쟁점으로 '조류 충돌 위험성'이 부상함.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및 새만금공항 1심 취소 판결의 핵심 사유가 조류 충돌이었기 때</li> </ul> </li> </ul>



정치·행정	항공	<p>문.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국토부가 '미국-캐나다 모델'을 적용해 위험성을 평가했으나, 축소 반영 논란은 계속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부는 향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조류 전문가 조사, 위치추적기 활용, 조류 탐지 레이더 및 첨단장비 도입, 드론 활용 등 "현재 가능한 모든 예방 활동"을 이행해 항공 안전을 확보하고 도민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힘. 입지 적정성 여부도 이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는 입장</li> </ul> <p>- 대통령실, 지방공항 비용 분담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실이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며,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건설 및 운영 비용 분담 개선 방안 검토를 지시함. 지난해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9개 공항이 적자를 기록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문제를 지적함</li> <li>· 제주 제2공항은 사업비가 7조원에 육박하며, 2015년 수요 예측(2030년 4424만명)이 현재 실제 이용객(약 3000만명 이하)과 1000만 명 이상 빗나간 상태임. 중앙정부가 지방공항의 수익성 개선과 비용 분담을 공식화함에 따라, 제2공항 사업 추진에도 상당한 여파가 미칠 것으로 전망됨</li> </ul>
-------	----	---

○ 경제·관광 보도자료의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소상공인, 기반, 금융, 수출, 현지 등으로 나타남



[그림 2] 경제·관광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경제·관광	소상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 정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와 제주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총 493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 정리를 추진함. 이는 전년 대비 117% 증가한 규모로,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에 맞춘 조치임. 상환 불가능 채권은 소각, 재기 가능성이 있는 경우 채무감면이나 새출발기금 매각을 통해 3000여 명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함</li> <li>·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 개소 100일 맞아 채권소각 행사 개최.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 493억 원 정리를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 상환 불가능 채권 33억 원(300건) 소각, 446억 원(2576명)은 새출발기금 매각으로 채무 조정, 14억 원(253곳)은 특별채무감면 캠페인으로 부담 완화</li> </ul> </li> <li>- <b>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금융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H농협은행 제주본부,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제주신용보증재단에 3억 원을 특별 출연함. 재단은 이 출연금을 기반으로 총 45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6월부터 운용할 예정임</li> <li>· 해당 자금은 스마트 결제 시스템 도입, 온라인 유통망 확보 등 디지털 기술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보증사업에 사용됨. 금융 접근성을 높여 소상공인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취지</li> </ul> </li> <li>- <b>소상공인 판로 확대 및 교류 행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년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7일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개최.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위상 제고 및 상생 의지 다짐. 유공자 8명 표창 수여 및 웃음치료 특강 등 소통과 화합의 시간 마련</li> <li>· 제주시 소상공인연합회, '한마음 박람회'를 14~15일 산지천 일대에서 개최. 소상공인 제품 홍보·판매 부스, 체험 부스, 가요제 등 운영. '주민자치박람회'와 연계해 원도심 상권 활력 제고 및 소상공인 네트워크 형성 도모</li> </ul> </li> </ul>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그린수소 산업 육성 기반 구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글로벌 그린수소산업 거점 육성을 위한 '제주 지역기술혁신허브 협의체' 공식 출범. 과기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200억 등 총 311억 원 투입. 제주도, 제주TP,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대학, 기업 등이 참여</li> <li>· 그린수소 생산 기술 연구개발, 사업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유기적 협력 체계 기반 마련. 생산 수전해 시스템 실증, 원천기술 개발, 기술이전 등을 포괄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2035 탄소중립 비전 실현 목표</li> </ul> </li> <li>- <b>혁신 스타트업 성장 기반 조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시 중심의 창업 인프라 개선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서귀포시 스타트업 타운' 개소, 37개 기업 입주 완료. 창업 4~7년 도약기 기업 대상 사무공간 무상 제공 및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li> </ul> </li> </ul>

경제·관광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스타트업베이(예비·초기)와 연계한 창업 전 주기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그동안 서귀포시 기업이 제주시로 이전해야 했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고 지역 내에서 기업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li> <li>- <b>스마트 농업 유통 기반 확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림농협, 농식품부 '2026~2027년 스마트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 총 39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선별장, 저온저장고 신축 및 채소 자동선별시스템 도입 예정</li> <li>· 지역 특산물 '달코미양배추'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선별·저장·출하 체계를 구축할 계획. 이를 통해 작업 효율성 향상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li> </ul> </li> </ul>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서민·취약계층 포용금융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와 제주신용보증재단, 정부 포용금융 정책에 맞춰 493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 정리를 통해 장기 연체 소상공인·자영업자 3000여 명의 재기 지원.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 개소 100일 기념 채권소각 퍼포먼스 개최</li> <li>·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 개소 100일간 100여 건 상담 진행. 맞춤형 금융상담, 채무조정 컨설팅, 법률 지원, 일자리·복지 연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촘촘한 금융안전망 역할을 수행. 채무조정 희망 도민은 무료 상담 가능</li> </ul> </li> <li>- <b>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금융 확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은행, 기술보증기금·한국평가데이터와 '생산적 금융 활성화' MOU 체결. 새로운 디지털 금융 브랜드 'DJ Bank' 운영을 본격화하며 ERP बैं킹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기반 금융지원 체계 강화</li> <li>· 기업의 ERP(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축적된 매출·자금 데이터를 금융과 연계해 신속한 자금 지원.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데이터 기반 맞춤형 금융지원을 추진해 금융 접근성 향상 목표</li> </ul> </li> <li>- <b>저소득층 자산형성 금융사업 부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하는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I'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함. 3년간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30만 원을 매칭 지원하는 파격적인 제도임</li> <li>· 서귀포시의 경우 2022년 시행 첫해 23명 등 4년간 총 89명 가입에 그쳤으며, 이들 중 21명은 중도 탈퇴. 3년간 근로 유지 및 탈수급 등 까다로운 만기 지급 해지 조건이 가입 부진의 원인으로 풀이됨</li> </ul> </li> </ul>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주 축산물 싱가포르 대규모 수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 싱가포르에서 '제2회 제주의 날' 행사 개최. 도내 19개 기업이 아세안 바이어 46명과 190여 건 상담 진행. (주)대한 F&amp;B가 싱가포르 대형 유통업체 쿨리나와 약 30억 원 규모의 육류 공급 계약 체결</li> <li>· 연간 한우 200두, 돈육 52t을 공급하는 계약으로, 제주 축산물의 아세안 진출 교두보를 마련. 제주 특산물을 활용한 프리미엄 식품군이 현지 유통업체와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주 농산물 몽골 신시장 개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시농협, 제주 대표 농산물인 노지감귤·골드키위·월동무 3품목을 통합해 몽골로 첫 수출. 12월 첫 수출 물량 17톤 선적식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총 123톤 규모(감귤 100톤, 키위 20톤, 무 3톤) 수출 예정</li> <li>· 몽골은 최근 국민소득 증가로 고품질 농산물 수요가 늘어나는 신흥시장. 일본·러시아 중심의 수출 구조를 동북아 내륙시장으로 다변화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 11월 27일부터 몽골 현지 이마트에서 대대적인 홍보 행사 진행</li> </ul> </li> <li>- <b>가공식품 및 신제품 해외 진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산 가공식품의 해외시장 진출 활발. 제주TP가 동결건조기술로 위탁 생산한 (주)제국백년초의 '백년초 분말'이 싱가포르에서 호평. 올해 4차례에 걸쳐 7400만원(5만 3천 달러) 상당을 수출했으며, 12월 1700여 만 원 추가 수출 확정</li> <li>· 제주 감귤 육종기업 (주)한농비엔티, 남아프리카공화국 품종 매니지먼트 기업과 MOU 체결. (주)한농비엔티가 개발한 유색계 만다린 등 신제품을 남아공 현지에서 공동 재배·시험해 아프리카·유럽 시장 상업화 추진</li> </ul> </li> </ul>
경제·관광	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아세안 시장 개척 위한 현지 공략</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회 싱가포르 제주의 날' 행사, 현지 시장 공략 성공. 30억 규모 축산물 수출 계약 외 , 3일부터 9일까지 싱가포르 중심가에서 '제주상품 팝업스토어' 운영. 감귤 가공품, 화장품 등 70여 종 제품이 현지 소비자에게 폭발적 반응을 얻으며 조기 완판됨</li> <li>· 싱가포르 현지에서 '제주+아세안 스타트업 데모데이'를 5~6일 개최. 제주 스타트업 8개사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현지 스타트업 및 투자자, 액셀러레이터와 교류. 제주의 친환경·AI 기술이 현지에서 주목받으며 글로벌 네트워킹 기반 강화</li> </ul> </li> <li>- <b>대만 관광객 유치 현지 마케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와 관광업계, 외국인 관광객 2위 시장인 대만 공략 가속화. 7일부터 10일까지 대만 최대 국제 여행박람회 '타이베이국제여전(ITF)'에 참가해 제주홍보관 운영</li> <li>· 도내 J-스타트업 기업 등과 함께 현지 여행사 및 OTA 13곳과 내년 제주 특화상품 개발 협력 강화. 21일부터는 타이베이, 타이중, 가오슝 등 현지 3개 도시에서 '런케이션 in 제주' 순회 설명회를 열어 개별관광객 유치 박차</li> </ul> </li> <li>- <b>중국 시장 공략 현지 교류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제7회 제주상품 유통 협력바이어 네트워크 교류 대회' 개최. 도내 8개 업체와 상해, 대련, 칭다오 등 중국 각지에서 참가한 23개사 현지 바이어 간 1대1 수출상담회 진행</li> <li>· 40여 건의 무역상담을 통해 총 10억 원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 달성. 10월 개최된 제주-칭다오 해상항로와 연계해 물류·통관 실무 협의 및 현지 왕홍(인플루언서) 제휴 홍보 등 중국 시장 진출 교두보 강화</li> </ul> </li> </ul>

- 지역·사회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발견(해안/마약류)**, **쿠팡(새벽)**, **노동자**, **실천**, **복지** 등으로 나타남



[그림 3] 지역·사회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지역·사회	발견(해안/마약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해안 마약 발견 10건 육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월 29일 성산을 광치기해변에서 케타민 20kg이 처음 발견된 이후, 11월 11일까지 애월읍, 조천읍, 제주항, 구좌읍 월정리, 우도 등 제주 북부 해안을 중심으로 마약류 발견 신고 10건으로 급증함. 총 발견량은 29kg으로 추정되며, 이는 97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분량임</li> <li>· 발견된 마약은 대부분 중국산 유명 우롱차 봉지나 '차(茶)'자가 적힌 벽돌 형태로 위장 포장된 케타민으로 확인됨. 대부분 낚시객, 주민, 바다 환경지킴이의 신고로 발견되어, 신고되지 않은 마약의 추가 유통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임</li> </ul> </li> <li>- 민관군 합동 대대적 해안 수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의 잇따른 해안 유입에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경찰청, 해병대 제9여단, 세관, 국정원 등 관계기관 긴급 대책 회의 개최함. 11월 11일, 군경 인력 및 공무원 등 810여 명, 마약 탐지견 4마리, 드론 6대, 헬기, 경비함정 등을 동원하여 제주 북부 해안 3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수색 작업을 전개함</li> <li>· 합동 수색 당일인 11일에도 구좌읍 월정리와 우도에서 추가로 마약 의심 물체가 발견됨. 수사당국은 해류를 통해 제주로 표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정확한 유입 경로를 파악할 계획임</li> </ul> </li> </ul>
-------	------------	---

지역·사회	발견(해안/마약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 유통 거점화 우려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해안에서 막대한 양의 마약이 발견되자 제주가 마약 유통의 중간 거점으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됨. 올해 상반기 제주 마약 사범 검거 인원이 60명으로 전년(32명)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한 상황임</li> <li>· 지난 10월 24일, 항공편으로 차 봉지에 위장한 필로폰 1.2kg(4만명분)을 밀반입한 30대 중국인이 검거됨. 해당 중국인이 필로폰을 다른 지역으로 유통하려 한 정황이 밝혀지면서 제주가 마약 유통의 경유지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됨</li> </ul> </li> </ul>
	쿠팡(새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대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 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월 10일 새벽 2시 10분경 제주시 오라2동에서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택배 노동자 A씨가 1톤 트럭을 몰고 물류센터로 복귀하던 중 전 신주를 들이받는 사고 발생함.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으며, 경찰은 졸음운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경위를 조사 중임</li> <li>· A씨는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야간조로 근무하던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확인됨. 제주에서는 지난해 7월에도 심야 배송 노동자가 뇌출혈로 쓰러지고 물류센터 노동자가 폭염으로 사망하는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바 있음</li> </ul> </li> <li>- '과로사' vs '생존권' 논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택배노조와 민주노총은 "명백한 과로사", "구조적 위험이 만든 사회적 타살"이라며 쿠팡의 구조적 책임을 주장함. 고인이 주 6일 야간노동,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주당 83.4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으며, 아버지 장례 하루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고 밝힘</li> <li>· 반면 쿠팡노동조합 측은 '새벽 배송 금지' 주장에 대해 "대다수 야간 배송 기사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일자리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함. 새벽 배송을 둘러싸고 '근로자 건강권'과 '소비자 편의 및 일 권리'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임</li> </ul> </li> <li>- 노동계, 특별근로감독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택배노조,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노동계와 정당들이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고 쿠팡의 책임을 촉구함. 이들은 쿠팡 측에 사망 경위 공개, 진상조사 기구 설치, 유족 사과, 심야노동 중단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함</li> <li>· 노동계는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에 쿠팡 전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즉각 시행을 촉구함. 야간노동의 건강 유해성(WHO 2급 발암물질)과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보호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구조적 개선을 요구함</li> </ul> </li> </ul>
	노동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쿠팡 30대 노동자 사망 과로 논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일 새벽 쿠팡 새벽배송을 하던 30대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물류센터 복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노동계는 고인이 주 6일, 주당 83시간이 넘는 장시간 야간노동에 시달렸다고 '명백한 과로사'라고 주장함</li> <li>· 민주노총, 택배노조 등은 쿠팡의 과로 시스템을 '사회적 살인'이라 비판하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함. 반면 쿠팡노조 측은 새벽배</li> </ul> </li> </ul>

지역·사회	노동자	<p>송 금지 주장이 '생존권 침해'라며 반발, 노동자 건강권과 일 권리 간의 갈등이 표출됨</p> <p>– <b>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예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가 2025년 집단임금교섭 불발에 따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함. 급식, 돌봄, 행정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구조적 차별 해소를 요구함</li> <li>· 노조는 기본급 인상, 방학 중 무임금 생계대책 마련,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 수당의 동일 기준 적용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세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11월 20~21일, 12월 4~5일 두 차례에 걸친 전국 총파업을 예고함</li> </ul> <p>– <b>제주 외국인 노동자 역대 최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허가제(E-9)에 따른 제주지역 외국인 근로자 수가 3,554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함. 지난해 4분기부터 1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임</li> <li>· 사업장 유형별로는 어업 분야가 1,37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축산업이 1,150명으로 뒤를 이음. 1차산업 분야 근로자 비중이 70%를 웃도는 가운데, 서비스업 근로자는 62명으로 전년 대비 72.2% 급증했으나 건설업은 2명으로 감소함</li> </ul>
	실천	<p>– <b>40년간 800회 헌혈 '생명나눔 실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지역 진성협(62)씨가 40여 년간 헌혈 800회를 달성하여 전국 최다 수준의 기록을 세움. 1981년 고교 시절 백혈병으로 친구를 잃은 것을 계기로 헌혈을 시작, 매 2주마다 꾸준히 생명나눔을 실천함</li> <li>· 진씨는 헌혈 외에도 매일 헌혈의집 안내 도우미 봉사활동을 하며, 1993년 '나눔적십자봉사회'를 창립해 독거노인, 결식아동 등을 위한 봉사를 이어옴. 그의 아들 역시 80회 이상 헌혈에 참여하며 '부자의 생명나눔'을 실천 중임</li> </ul> <p>– <b>'노블레스 오블리주' 기부 실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제주아너소사이어티클럽이 제5회 자선골프대회를 통해 성금 300만원을 기탁함. (주)오현개발 김순희 대표는 아너소사이어티에 1억원을 추가 약정하며 총 2억원의 기부를 실천함</li> <li>· 재성철강 한해성 대표가 11년간의 꾸준한 이웃사랑 실천 공로로 '2025 나눔국민대상' KBS사장 표창을 수상함. 한 대표 역시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자 레드크로스 아너클럽 회원으로 나눔 리더 역할을 수행함</li> </ul> <p>– <b>탄소중립·자원순환 생활 실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가 '텀블러 할인 매장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1만 8천 건 이상의 텀블러 이용 실적을 기록함. 11월 30일 열리는 '차 없는 거리 걷기행사'에서도 텀블러 지참 및 대중교통 이용 시 리워드를 제공하며 탄소중립 실천을 독려함</li> <li>· 서귀포시 서홍동마을이 '탄소중립 실천 선도마을'로 선포됨. 제주시 공직자들은 재활용품을 기증하는 '자원순환 자활사업'을, 제주주택구매지원센터는 '녹색어린이집 만들기' 사업을 통해 녹색소비 실천 문화를 확산함</li> </ul>

지역·사회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6년 기초생활보장 대폭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된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됨. 이는 역대 최고 인상률로 , 제주지역 생계급여는 19.7% 증액된 1,631억 원이 투입될 예정임</li> <li>· 생계급여는 4인 가구 최대 207만 8,316원으로 인상되며 ,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도 인상됨. 34세 이하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및 의료급여 부양비 기준 완화 등 선정 기준이 완화되어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전망이다</li> </ul> </li> <li>-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복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역량강화 교육, 출산비용 120만원 지원, 가사도우미 파견 등 맞춤형 복지사업을 연중 추진함</li> <li>· 겨울철 폭설·한파 대비 사회복지시설 71곳 안전점검 실시. 장애인 고용 촉진장려금 지원업체 65곳 실태점검. 고독사 위험군 3,037가구 대상 하반기 실태조사 실시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섬</li> </ul> </li> <li>- 자살률 감축 위한 민관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해 제주 연령표준화 자살률이 32.4명으로 전국 평균(24.6명)보다 높게 나타남. 이에 제주도는 2029년까지 자살률을 22.7명으로 30%(9.7명)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종합대책을 추진함</li> <li>· '자살 위험 없는 안전 제주' 업무협약 17개 기관이 9월부터 12월까지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함. 또한 '세계 자살 유족의 날'을 기념해 20일부터 3일간 유족 작품 전시회 및 특별 강연을 개최하여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나섬</li> </ul> </li> </ul>
-------	----	---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